

#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지역의 정치의식 변화에 관한 소고(小考)

-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와 집권정당에 대한 지지의  
전형성 평가를 중심으로 -

강혜련/박재욱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신라대학교 행정학과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V. 여론조사 결과 |
| II. 분석틀과 개념            | VI. 맺음말    |
| III. 연방대통령 및 국가두마의원 선거 | 참고문헌       |
| IV. 지방의회 선거            |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정치성향(Political propensities), 지역주의(Regionalism), 지지의 전형성(Typical level of support),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Russian Far East and Siberia), 사회여론재단 (Public Opinion Foundation)

### 국 문 요 약

이 글은 러시아의 극동, 동시베리아지역 주민들의 정치의식 변화를 주로 연방 및 지방수준 투표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와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의 전형성 평가가 초점이었다.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수준 선거에서 보여준 투표경향은 연방 전체의 변화에 근접하고 있다. 지역의 정치적 세(勢)가 약하고 지역주민들이 연방중앙의 의사에 비교적 추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여당적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민족원칙 연방주체를 외에도 대규모 도시가 있는 연방주체들에서도 그 상승세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셋째, 보수적 좌파성향의 정치세력은 위축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집권세력으로의 흡수라는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지방에도 관통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민족원칙 연방주체들에서 일관되게 집권세력, 여당적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가 높다. 지지율 상승은 대도시에서도 적지 않은데, 이는 푸친 집권하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지방의회 선거결과와 결합하면 현재까지 이어짐

을 알 수 있다. 극동, 시베리아지역의 차별적 특성, 푸친 집권 이래 권위주의적 색채의 강화 등을 보여주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여론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방수준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종종 중앙권력에 대한 전반적 승인과 대비되는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수성과 개혁성의 측면에서 극동과 동시베리아지역은 이전의 보수성이 강했던 색채에서 이제는 외견상 개혁성을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가 계속 강화되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I. 머리말

러시아의 극동과 시베리아지역은 고대에는 동북아 역사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고대문화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로의 편입과 더불어 토착민족의 역사가 아닌 러시아족의 역사가 중심이 되면서 아시아문화권과는 분리되는 궤적을 그리게 된다. 체제전환의 충격은 러시아의 유럽지역을 포함하여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크게 다가왔으며 동북아권으로의 편입은 러시아내에서 지역의 위상변화와 더불어 중앙과는 일정하게 분리된 채 국제질서에 편입해야 하는 상황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성향을 고찰하는 것은 단순하지도 또 편리하지도 않다. 러시아에서는 변방지역이지만 동북아권에서는 그 자체로 주요한 중심 가운데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체제전환이후 외부세계, 그리고 연방중앙에 대해 갖는 의식은 고정될 수도 안정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극동, 시베리아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으로 분류된다. 대부분 러시아의 집경지역의 경우처럼 1990년대 초반이후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좌파성향의 정치세력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제공했고, 푸친 집권 시기를 경과하면서는 비교적 강성의 우파적 정치세력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념적 갈등과 충돌이 다른 지역에 못지않으며, 특히 연방대통령 전권대표부의 구성에 비추어 지역이 갖는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상의 의미까지 부각되기도 한다. 극동, 시베리아지역 주민들의 정치의식 변화는 주로 지배적 정치질서의 유지, 핵심적인 정치적 요소와 기제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은 지역의 정치적 변화의 중심에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여준다. 여론조사 및 다른 자료들에서 보여지는 주민들의 지방 정치제도와 현실에 대한 평가는 변화의 일반적 흐름을 개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동시에, 주민들의 의식 자체의 변화의 지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 글은 러시아 극동, 동시베리아지역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주로 투표,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난 결과를 이용하여 그 변화추이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보수성과 개혁성, 권위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와 집권정당에 대한 지지의 전형성 평가를 중심적 초점으로 한다.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는 주로 극동, 동시베리아의 지역적

1) 러시아의 아시아지역에 포괄되는 극동지역과 동시베리아지역을 주요 연구대상범위로 한다.

특성이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이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인종주의 혹은 지역주의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등장을 의미하거나 예견하는 정도까지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에 연관된다. 집권정당에 대한 지지의 전형성 평가는 개혁이후시기동안 러시아 정치 전반에서 나타났던,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의 전형성, 즉 누가 집권하든 집권세력에 지지를 보내는 정치성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러시아 정치변동의 특성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연방주체 수장의 선출방식이 바뀌면서 연방수준 선거가 갖는 의미가 지방에서 좀더 중요해졌다. 입법기관의 위상을 전제하더라도, 집행권력 수장의 선출방식 변화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은 것이다. 지역수준 선거자료를 가능한 선에서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2007년, 2008년 연방선거에서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유권자의 투표결과를 주요자료로 볼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자료들은 객관성과 총체성의 측면에서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주민들의 의식과 정치성향의 전반적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선거를 비롯한 공식적 자료에서 드러나지 않는, 신뢰도라든가 인지도, 정치적 선호와 같은 항목들을 보다 선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 II. 분석틀과 개념

체제전환은 당연한 귀결로서 비록 단기간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와 좌절감, 전체적인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은 깊고도 심각한 것이었다. 체제전환을 경험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는 러시아학자들에 의해서도 적지않게 진행되었다. 특히 심리학 분야에서 러시아 시민들의 기본가치, 생활의 목표, 사회적 위상, 현존 사회적 규준과 금기 등에 관한 대중적 의식, 그리고 다양한 연령, 사회집단들의 적극성에 대한 연구들이 심도있게 진행되었다(Дубова 1997).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주로 정치적 가치, 이념과 체제, 정치체도와 정치기구, 정치활동가들에 대한 신뢰도, 정치적 사건, 이슈에 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토대로 지역들간의 비교와 상호연관성,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러시아 시민들의 정치의식상의 특징을 도출해냈다. 정치행태 분석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을 분석하는 작업은 빈번하게 행해졌다. 특히 연방과 지방의 여러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선거가 진행된 1990년대 중반-후반에는 선거 및 정치과정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대체로 유권자들의 투표성향, 정당지지에 나타나는 이념적 성향, 후보자들의 성향과 지지도, 신용도 분석 등이 부각되는 초점이었다.<sup>2)</sup>

2) <경제 및 사회변혁 : 사회여론 모니터링>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перемены: мониторинг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사회여론” 소식지>(Сообщения Фонда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등은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활용한 연구성과를 전문적으로 실는 저널들이고, 정치학 분야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성과는 <정치연구>(Полит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등에 실린다.

## 1. 지역주의적 성향

지역주민들의 의식변화와 관련, 지역정체성, 지역에의 귀속성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러시아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일차적 거주지에 대한 귀속성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다. 유럽 나라들의 경우 긍정적인 대답이 40-50% 정도인데 비해, 러시아는 20%이하였다. 보다 광역의 지역에의 귀속성은 유럽의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런가 하면, 나라 전체에의 귀속성은 유럽지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다른 유럽국가들은 30%를 전후한 긍정성을 보인데 비해 러시아는 50% 정도를 보였다(Рукавишников, Халман, Эстер 1998, 282-286).

러시아에서 지역정체성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음을 주목할 수 있다. 지역정체성은 지역이 갖고 있는 정치, 문화, 사회와 같은 요소들에 대해 개인들이 갖는 귀속성과 그에 기반하여 지역수준에서 나타나는 총합적 의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1998, 93-94, 295). 영토적 규모가 크다는 것 이외에, 비교적 유동성이 적은 사회적 특성이 어느 정도 감안될 수 있다. 극동, 시베리아 지역은 인구규모와 같은 조건들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문화, 역사, 사회구조의 면에서 지역주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특성이 강하다. 1990년대-2000년대에 걸쳐 남부지역은 주로 인종, 민족주의에 기반한 분리독립의 가능성을, 극동지역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자치 및 자결권의 강화를 주장했음이 상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투표행태 결정에서 인종주의, 지역주의가 영향을 미치면 후진적인 정치체제의 부산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근대화, 산업화가 진전되면 차츰 소멸되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또한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투표행태 결정의 주요변수로서 지역주의는 세계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그것이 정당정치 및 지역수준 정치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경향은 단순히 정치적 후진국가만이 아니라 남부유럽의 정치발전 중위국가, 심지어는 정치적 선진 국가라 할 수 있는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Ragin 1977, 438-450; Kaspin 1995, 559-620; Lijphart 1981; Rudolph and Thompson 1985, 291-311).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오히려 근대화가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지역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개발에 의한 지역간 격차확대는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는 한편으로 그것은 저발전된 지역보다는 발전되고 도시화, 산업화된 지역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Jalali and Lipset 1992/1993, 585-606).

뉴먼은 스코틀랜드, 웨일, 벨기에 등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종주의 및 지역주의 정당의 출현배경을 설명한다. 이들 정당은 각 지역에 있던 기존 정당들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당,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 감소, 통신혁명, 교육기회의 광범위한 확산, 사회적 유동성의 강화 등을 원인으로 정당해체가 이루어졌고 인종 및 지역주의 정당이 강력한 중심점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뉴먼은 1940-50년대에 걸쳐 강화된 중앙집권화와 관료 주도의 정치체제에 따른 지역의 소외, 저발전이 지역의 인종집단이나 지역주의를 자극하게 되었고

이것이 정치적 아젠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본다(Newman 1991, 451-478; Newman 1994, 28-66).

극동시베리아 유권자들이 정치의식을 분석하는 데에서는 인종주의, 지역주의 정당이 출현했다는 측면보다는, 그러한 성향이 지역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나타나는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극동시베리아의 지역주의적인 정치세력의 등장을 위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지역의 다민족적 특성, 지역의 산업적, 문화적 특성이 결합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역주의적 성향이 정치적 행태, 정치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초점이 되는 것이다.

## 2.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의 전형성

정치의식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준거틀 가운데, 러시아 정치변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중심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이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의 전형성 문제이다. <러시아지방의 정치적 특성과 유형화>에서는 2004년까지 양대 연방선거를 분석하면서 러시아의 정치적 지형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이 나왔다. 러시아 정치세력 분류에서 여당적 정치세력, 보수적인 좌파성향의 정치세력은 정치적 지배구도를 주로 정당 중심으로 분류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유권자들이 누가 집권하든 집권세력에 일관되게 지지를 보내는 특성을 파악하여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의 전형성이라는 표현이 동원되었다.<sup>3)</sup> 이러한 개념적 틀이 러시아는 물론, 권위주의적 체제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유권자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강혜련 2005).

# III. 연방대통령 및 국가두마의원 선거

## 1. 연방 국가두마의원 선거

연방 국가두마의원 선거와 연방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지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해볼 수 있다. 유권자들의 이념적 성향이 항상 초점이 되는데, 러시아의 정치지형에서는 1990년대 이후 줄곧 과거의 정치적 유산을 부정하려는 소산에서 그 내용과는 별개로 개혁성을 중심으로 세력편성을 시도하는 경향이 강했다. 개혁이후 현재까지 초기에 짜여진 정당 및 정치세력 구도, 특히 집권세력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변화했다는 징후는 없다.

여당적 정치세력은 1990년대 중반에는 우리의 집-러시아, 1990년대 말에는 예진스트보, 2000년대 들어서는 통합러시아를 중심으로 한다.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의 전형성 문제는 이들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상대적으로 대립각을 형성하는 보

3) 개념 자체의 정치성 보다는 주로 현재적 정치변동 상황을 파악하는데 동원될 수 있는, 의미와 포괄범주의 문제에 보다 집중하는 개념선택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수적인 좌파성향의 정치세력은 러시아공산당으로 대표되며, 관련되는 군소정당들 역시 조직적, 비조직적 형태로 이 세력에 포괄될 수 있다.<sup>4)</sup>

이미 2011, 2012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전 선거들에서 보여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분석에서는 행태 자체에서 나타나는 기본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즉, 시기별 이슈에 따라 유권자들이 따른 정치적 노선보다는, 유권자들이 구체적으로 정치세력을 택하는 기본구도,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다음의 표는 2007년 선거까지 연방 국가두마 의원 선거에서 집권정당이 획득한 득표율 변화정도를 보여준다.

<표 1> 통합러시아(우리의 집-러시아, 예진스트보)의 득표율 변화정도

연방주체	부랴찌야	띠바	하까시 야	끄라스노야르스크				이르쿠츠크				치따		우스찌- 오르다	
				32.12	25.42	31.20	22.33	36.84	33.66	27.29	34.12	31.23	29.47		
1995	5.7	29.3	4.4	9.3				8.4				4.3		9.5	
1999	25.46	70.80	31.16	32.12	25.42	31.20	22.33	36.84	33.66	27.29	34.12	31.23	29.47	35.71	
2003(A)	34.71	66.83	30.36	29.89				32.89				38.09		46.37	
2007(B)	65.59	89.21	59.53	60.97	57.58	63.09		62.01	55.30			62.75		71.73	
B-A	30.88	22.38	29.17	31.08	27.69	33.20		29.12	22.41			24.66		25.36	
연방주체	아긴 부랴트	야꾸찌야	연해 끄라이				하바롭 스크	아무르	캄차 트까	꼬랴크 자치구	마가단 주	사할린 주	유대인 자치주	추꼬트 까자치 구	
1995	3.9	14.1	3.5				4.0	3.6	7.2	7.2	8.2	4.2	5.2	17.7	10.3
1999	21.80	26.07	33.24	15.08	33.07	26.21	27.88	36.21	29.87	42.49	42.95	23.06	21.14	43.44	23.32
2003(A)	58.08	38.89	27.88				34.31	32.34	34.82	47.35	34.36	30.13	33.64	54.41	
2007(B)	83.21	63.99	58.21		51.53		60.68	69.75	63.67		55.31	62.96	66.22	78.13	
B-A	25.13	25.10	30.33		23.65		26.37	37.41	28.85		20.95	32.83	32.58	23.72	

출처 : 1995, 2003년 선거는, 강혜련 2005, 101-104. 1999년 선거는, Сводная таблица... 1999. 2007년 선거는, Сводная таблица... 2007.

2007년 선거결과를 보면, 이전 선거들에 비해 여당적 정치세력인 통합러시아의 득표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연방수준에서도 관통되는 현상으로 극동, 동시베리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대체로 50-70%이 득표율을 보였다. 락바 공화국, 우스찌-오르다 자치구, 추꼬트까 자치구와 같이, 민족원칙 연방주체이면서 인구밀집도가 낮고 산업발전 및 도시화 정도가 낮은 지역에서 80%를 넘는 지지를 얻었다.

끄라스노야르스크 끄라이, 이르쿠츠크주, 연해 끄라이, 하바롭스크 끄라이, 마가단주에서는 50%의 득표율을 보였다. 그렇지만 이들 지역 역시 이전 선거에 비해 득표율이 상승한 것이 놀라울 정도이다. 끄라스노야르스크 끄라이와 연해 끄라이의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30% 이상 득표율이 상승했고,

4) 지지율이 80%를 넘는다 해도 전체 정치성향 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이들 연방주체의 인구규모를 감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연방주체들이 통합하면서 인구규모가 조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작은 규모의 연방주체들이 적지 않음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아무르주에서는 무려 37.41%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극동과 동시베리아지역이 전통적인 ‘붉은 변방’에서 집권세력의 전형적인 지지기반으로 역할전환을 시도했음이 분명하게 보여진다.

이와 대비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보수적 좌파성향의 정치세력으로서 러시아공산당의 득표율 변화이다. 다음의 표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7년에 이르는 시기까지 러시아 공산당이 획득한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여준다.

<표 2> 러시아공산당의 득표율 변화정도

연방주체	부라찌야	띠바	하카시아	끄라스노야르스크				이르쿠츠크				치따		우즈제-오르다		
1995	28.6	12.0	22.0	19.2				16.0				22.0		23.2		
1999	27.06	8.31	25.01	28.53	18.12	29.12	25.40	22.10	22.78	21.50	27.78	29.63	29.16	25.40		
2003(A)	14.87	7.58	19.05	13.35				16.29				12.64		10.20		
2007(B)	10.67	2.99	12.88	13.51	12.68	11.95		9.93		11.65		8.74		5.74		
B-A	-4.2	-4.59	-6.17	0.16		-0.67		-1.4		-6.36		-4.64		-3.9		-4.46

  

연방주체	아긴 부랴트	아구찌야	연해 끄라이			하바롭스크		아무르	깜차트까	꼬랴크 자치구	마가단 주	사할린 주	유대인 자치주	추코트까 자치구	
1995	18.6	18.1	18.9			16.3		35.4	11.5	10.3	12.7	25.0	23.9	11.2	22.7
1999	20.75	22.40	25.43	18.63	23.15	23.23	18.83	24.33	17.84	11.67	18.86	24.27	34.01	11.13	24.29
2003(A)	7.19	9.03	14.88			6.74		16.09	8.56	8.53	11.89	11.94	10.97	5.16	12.61
2007(B)	4.50	9.48	12.08	11.73		10.98		10.16	8.06		11.68	14.55	14.09	3.05	11.57
B-A	-2.69	0.45	-2.8	-3.15		4.24		-5.93	-0.5		-0.21	2.61	3.12	-2.11	-1.04

출처 : 1995, 2003년 선거는, 강혜련 2005, 101-104. 1999년 선거는, Сводная таблица... 1999. 2007년 선거는, Сводная таблица... 2007.

2000년대 들어 러시아공산당은 1990년대에 비해 현저히 그 세력이 약화되었음이 드러난다. 연방수준에서도 지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는 지역수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약화되는 경향성은 비교적 일관성을 보인다. 부라찌야 공화국과 띠바 공화국이 대비될 수 있는데, 부라찌야 공화국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네 번의 연방 국가두마의원 선거에서 러시아공산당이 28.26%에서 27.06%로, 그 다음에는 14.87%로, 그리고 다시 10.67%로 낮아졌다. 그런가 하면 띠바 공화국은 12.0%에서 8.31%로, 그 다음에는 7.58%로 낮아지고 다시 2.99%의 득표율을 보였다. 전체 정치권력구조에서 의회 역할의 변화, 국가두마의원 선출방식의 변화 등이 가져온 여파와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되겠지만, 여당적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와 극히 대조적으로 보수적 좌파세력의 급격한 퇴조는 푸틴 집권하에서 지역의 정치성향이 급변한 것을 보여준 중요한 지표로 상정될 수 있다.

대규모 도시들에서의 득표율 변화를 비교해볼 수 있다. 대체로 끄라스노야르스크 끄라이에서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높고 연해 끄라이도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보이면서 그 변화의 폭이 다른 연방주체들에 비해 적다. 그런가 하면, 치따, 아무르, 깜차트까, 하바롭스크 등은 선거에 따라 득표율 편차가 크다. 극동과 동시베리아의 대규모 도시들의 이념적 정치성향은 연방수준 선거에서는 보수적 좌파세력의 약화 속에서도 아직까지 그 존속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보수적 좌파성향의 정치세력은 극동과 동시베리아 지역에서는 1999년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고, 이후 2003년 급격히 하강하는 추세로 들어가서 2007년 선거까지 그

경향이 이어졌다. 2003, 2007년 선거에서 득표율이 상승한 것은 하바롭스크 크라이와 사할린주 정도가 두드러지는데, 이 연방주체들은 2003년 선거에서 득표율이 워낙 낮았음이 감안될 수 있다. 2003년 선거에서 득표율 하락 추세는 2007년에도 지속되어 대부분의 연방주체들에서 마이너스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 2. 연방대통령 선거

연방대통령 선거를 보면, 결국 엘친에서 푸친으로, 그리고 다시 메드베제프로 선거의 승리가 넘겨졌다. 개혁이후시기동안 정치세력의 합종연횡 속에서도 근본적인 지배구도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러시아 집권세력의 특성이 형성되었다. 집권가능성과 대중적 활동의 구조적, 선제적 차단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엘친집권 이후 반대세력과의 결합 혹은 색채나 근원이 다른 집단과의 연합이라는 측면에서조차도 집권세력의 범주는 정치적 다원주의의 의미를 변질시킬 만큼 일관되면서 권위주의적 정치구조의 존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표는 1990년대 중반이후 2008년 선거에 이르기까지 연방대통령 선거에서 1, 2위를 한 후보들의 득표율 변화 정도를 보여준다.

<표3> 연방대통령 선거에서 1,2위 후보의 득표율 변화정도

연방주체	부라찌야	피바	하까지야	프라스노야르스크	이르쿠츠크	치타	우스제-오르다	아긴 부랴트	야꾸찌야	연헤 크라이	하바롭스크	아무르	캄차트카	코랴크 자치구	마가단 주	사할린 주	유대인 자치주	추코트카 자치구	
1996a	30.59	59.93	29.24	34.80	32.20	24.54	36.99	44.73	51.85	29.55	39.01	26.60	34.29	45.99	36.93	29.86	30.36	48.49	35.28
1996b	40.22	21.17	35.48	28.52	27.57	39.12	40.01	35.74	20.55	24.56	22.92	41.85	18.69	14.97	16.04	26.91	32.84	13.50	32.03
1996(a-b)	-9.63	38.76	-6.24	6.28	4.63	-14.58	-3.02	8.99	31.3	4.99	16.09	-15.25	15.6	31.02	20.89	2.95	-2.48	34.99	3.25
1996a'	45.30	63.07	47.18	53.43	52.64	40.89	48.67	49.16	64.65	52.26	58.98	40.67	61.81	69.98	63.57	53.38	49.43	74.29	53.83
1996b'	49.50	32.11	47.15	40.01	39.77	52.50	47.00	47.23	29.87	39.41	33.72	53.07	29.47	22.90	27.54	38.81	43.68	19.14	40.30
1996(a'-b')	-4.2	30.96	0.03	13.42	12.87	-11.61	1.67	1.93	34.78	12.85	25.26	-12.4	32.34	47.08	36.03	14.57	5.75	55.15	13.53
2000a	42.16	62.41	42.45	48.36	50.15	49.14	56.80	62.80	52.49	40.16	49.54	49.39	48.79	61.12	61.99	46.73	42.87	67.24	52.94
2000b	40.32	27.39	36.42	32.82	33.03	35.48	31.30	26.35	30.19	35.86	28.05	33.50	28.15	20.11	22.52	30.79	39.73	15.33	29.21
2000(a-b)	1.84	35.02	6.03	15.54	17.12	13.66	25.5	36.45	22.3	4.3	21.49	15.89	20.64	41.01	39.47	15.94	3.14	51.91	23.73
2004a(A)	66.58	87.53	61.41	60.31	61.96	72.49	72.76	84.25	69.76	59.37	64.52	64.87	71.82	84.34	70.05	68.41	67.87	87.24	71.31
2004b	17.08	6.02	18.36	11.09	16.76	14.78	14.34	7.82	11.33	16.98	13.02	18.74	9.25	4.89	10.35	14.10	15.47	3.08	13.69
2004(a-b)	49.5	81.51	43.05	49.22	45.2	57.71	58.42	76.43	58.43	42.39	51.5	46.13	62.57	79.45	59.7	54.31	52.4	84.16	57.16
2008a(B)	70.84	89.32	60.47	62.47	61.24	65.81			67.78	63.84	64.12	63.62	69.39		63.07	63.52	67.39	81.41	70.28
2008b	18.46	5.78	22.79	20.62	21.82	17.35			20.53	19.68	18.13	19.76	14.83		20.10	21.26	19.88	7.17	
2008(a-b)	52.38	83.54	37.68	41.85	39.42	48.46			47.25	44.16	45.99	43.86	54.56		42.97	42.26	47.51	74.24	
B-A	4.26	1.79	-0.94	2.16	-0.72	-6.68			-2.00	4.47	-0.4	-1.25	-2.43		-6.98	-4.89	-0.48	-5.83	-1.03

\* 1996a, 1996b, 1996a', 1996b', 2000a, 2000b, 2004a, 2004b, 2008a, 2008b: 각 년도의 선거에서 1위(a 혹은 a')와 2위(b 혹은 b') 후보의 득표율.

출처 : 1996, 2004년 선거는, 강혜련 2005, 75-79. 2000년 선거는, Сводная таблица... 2000. 2008년 선거는, Сводная таблица... 2008.



집권세력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극동, 동시베리아지역은 1996년과 2000년 선거에서는 대체로 30-40%대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2004년과 2008년에는 60-70%대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집권세력 후보와 반대세력 후보의 득표율 격차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1990년대 중반 선거에서는 마이너스, 즉 반대세력에 높은 지지를 보이다가 2004년 선거에서 집권세력에게 가장 높은 투표를 한 연방주체들로서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의 전형성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치마주, 아무르주가 대표적이고 부랴찌야 공화국, 우스썬-오르다 자치구도 결국 정치구도의 변화에 가장 크게 반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1990년대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에 대한 지지율 격차에서 상당히 폭이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4년, 2008년 선거에 이르면 거의 모든 연방주체들이 고르게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에 대한 득표율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선거에서 집권세력 후보의 득표율과 반대세력 후보의 득표율은 거의 모든 극동, 동시베리아 연방주체들에서 4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4년의 경우와 비교하면 많이 좁혀진 것인데, 반대세력 후보의 득표율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고(하리또노프→쭈가노프) 따라서 군소 후보들의 득표율이 낮아졌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2000년 선거에서 극동, 동시베리아에서 정치세력들간의 경쟁이 치열했음이 드러난다. 이는 1996년 선거에서 보여진 경향과 이어지는 맥락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민족원칙 연방주체들과 마가단주 정도가 비교적 큰 격차로 집권세력이 승리하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 정국의 긴박성이 느껴지는 것으로, 이후 정치상황이 권위주의로 급격하게 회귀하는 현상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4년 선거에서는 이전의 정치적 상황과의 단절을 집권세력이 피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2008년 선거에서는 이전 선거에 비해 집권세력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극히 높은 가운데서도 변화가 크지 않았다. 푸친에서 메드베제프로 후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이 일단 단일성 확보의 측면에서 성공했음을 보여주었다. 특징적인 것은 이전 선거에서 압승했던 푸친의 득표율보다 대부분의 연방주체에서는 메드베제프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진 반면, 연해 크라이, 부랴찌야 공화국에서는 4% 이상 높아졌다는 점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 띵바 공화국에서도 집권세력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졌다.

2008년 선거에서 집권세력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반대세력 후보에 대한 지지율보다 50% 이상 앞선 것은 띵바 공화국, 추코트카 공화국, 부랴찌야 공화국과 같은 민족원칙 연방주체들이고 캅차트카 크라이가 거기에 끼게 되는 것이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반면 하카시야 공화국과 이르쿠츠크주에서 그 격차가 30%대이고, 나머지 연방주체들은 40%대의 격차를 보였다.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의 전형성 측면에서 극동과 동시베리아지역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급박성보다는 온건함이 드러난다. 2000년대 들어 권위주의적 색채의 강화는 이전까지의 정치구조를 잇는 선상에서 제도의 변화는 급변하되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의 일관성은 연속되고 있는 것이다.

### 3. 주요한 특징들

극동, 시베리아지역 주민들의 투표결과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수준 선거에

서 보여준 투표경향은 연방 전체의 변화에 근접하고 있다. 연방중앙과 거리가 있고 처하는 환경적 요인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단순하게만 보기 힘들며 오히려 지역의 정치적 세(勢)가 약하고 지역주민들이 연방중앙의 의사에 비교적 추종하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당적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변화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없지만, 민족원칙 연방주체들 외에도 대규모 도시가 있는 연방주체들에서도 그 상승세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보수성과 개혁성으로 분류되던 정치적 지형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적 좌파성향의 정치세력은 위축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집권세력으로 흡수되는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지방에서도 관통되는데,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이를 외면상으로는 용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민족원칙 연방주체들에서 일관되게 집권세력, 여당적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지지율 상승은 대도시에서도 적지 않은데, 이는 푸친 집권하에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지방의 지배구도 변화와 연관시켜 볼 수 있다. 남부지역을 비롯해 열린 집권하에서 가장 분쟁과 갈등이 많았던 것이 민족원칙 연방주체들이었음을 감안하면, 극동, 시베리아지역과의 차별성, 푸친 집권하에서 권위주의적 색채의 강화 등을 보여주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 보게 될,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방수준에서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종종 중앙권력에 대한 전반적 승인과는 배치되는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수성과 개혁성의 측면에서, 극동과 동시베리아지역은 이전의 보수성이 강했던 색채에서 이제는 외견상 개혁성을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가 계속 강화되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IV. 지방의회 선거

연방수준 선거와 더불어 지역수준 선거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한 분석가는 지방선거가 연방선거보다 훨씬 더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정치가들의 레이팅은 연방수준 정치가들에게서보다 특히 높을 수 있다. 그 가장 선명한 예로, 프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는 2004년 연방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이 50%이하인 유일한 지역이고, 하바롭스크 크라이 주지사 이샤예프(Ишаев В.И.)<sup>5)</sup>의 레이팅은 2004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푸친의 레이팅보다 거의 두 배가 높았다. 결국 지역에서는 모든 수준의 지역 및 지방선거에서 경쟁이 극히 심하지 않고 선출직의 로테이션 수준은 아주 선명하다. 이를테면, 1990년대에 캄차트카에서는 국가두마의원이 한명도 재선되지 않았고 도시와 라이온, 주소비에트 의원들 등은 항상 교체되었다(Къшев 2008).

지역수준 선거가 고정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연방주체 수장선거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

5) 현재 극동연방지구 연방대통령 전권대표이다.

반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가들을 배출하면서 연방주체 수장은 러시아 정치무대의 핵심으로 위치지어졌다. 연방정부와의 타협속에 결국 연방주체 수장은 연방대통령이 임명하는 후보를 지방의회에서 동의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바뀌면서 개혁이후 시기 러시아정치的重要한 영역을 구성했던 지방선거의 중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더불어 중앙의 정치에서도 중요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조정당하게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현 시기 지방유권자들의 지역수준 정치에 대한 인식을 보기 위해서 지방의회 및 지방수도 수장선거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2009년과 2010년 실시된 지방의회 및 지방수도 수장 선거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적 특성이 지역수준 선거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주요 초점으로서, 정치적, 이념적 성향의 분류가 여전히 유효하다 하더라도 연방 전체에서 지방선거가 보여주는 것은 집권정당의 압도적 우위를 전제하면서 푸친 집권 시기와는 또 다른 형태로 지역별 특성이 드러나는 의회의 구성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2009년과 2010년 5월까지 극동, 시베리아지역에서 지방의회 선거는 대표적으로 하카시야 공화국, 하바롭스크 크라이에서 실시되었다. 2009년 3월 1일에는 러시아연방 79개 연방주체에서 3천 개 이상의 선거가 각 수준별로 실시되었다. 9개의 연방주체에서 입법회의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결과를 보면 대다수 지역에서 친대통령 정당인 통합러시아가 승리했고 그 다음을 러시아공산당이 차지했다. 하카시야 공화국의 경우, 통합러시아가 57.33%, 러시아공산당이 14.69%, 정의로운 러시아가 7.18% 그리고 러시아 자유민주당이 10.24%, 러시아의 애국주의자들이 7.27%를 획득했다. 의석으로는 통합러시아가 53석, 러시아공산당이 7석, 러시아 자유민주당이 4석, 정의로운 러시아가 4석 그리고 러시아 애국주의자들이 3석을 얻었다.

하바롭스크 크라이의 입법기관 의원선거는 2010년 3월 14일에 다른 지역의 7개의 연방주체와 함께 실시되었다. 하바롭스크 크라이에서는 통합러시아가 정당별 득표로 47.93%, 러시아공산당이 18.93%, 러시아 자유민주당이 13.63%, 정의로운 러시아가 15.45%를 획득했다. 전체 의석배분을 보면, 통합러시아가 18석으로 69.23%를, 러시아 공산당이 3석으로 11.54%를, 러시아 자유민주당이 2석으로 7.69%를, 정의로운 러시아가 2석으로 7.69%를, 그리고 무소속이 1석으로 3.85%를 차지했다.

#### <표4> 하바롭스크 크라이 입법두마 의원선거 결과 (2010.3.14.)

	선거구		비례대표		총계	
	의석수	%	의석수	의석수	%	
통합러시아	12	47.93	6	18	69.23	
러시아공산당	0	18.93	3	3	11.54	
러시아 자유민주당	0	13.63	2	2	7.69	
정의로운 러시아	0	15.45	2	2	7.69	
무소속 입후보	1	-	-	1	3.85	
총계	100.00		100.00			

출처 : Законодательная Дума... 2010.

그 이외에 최근에 실시된 연방주체 수도의 시장선거의 결과를 볼 수 있다. 2010년 3월 14일에 실시된 이르쿠츠크 시장선거를 보면, 러시아공산당 소속의 후보인 콘드라쇼프(Кондрашов В.И.)가 62.32%를 득표했고, 통합러시아 후보 세레브렌니코프(Серебренников С.В.)가 27.21%를 득표했다. 특징적인 것은 같은 날 실시된 크라스노다르, 옴스크, 로스토프-나-도누, 울리야놉스크 시장선거에서는 통합러시아 후보가 승리했는데 비해, 이르쿠츠크 시장선거에서만 러시아공산당 후보가 승리했다는 점이다.

집권정당의 압도적인 우위는 연방주체 수도의 의회선거에서도 명백해졌는데, 같은 날 실시된 아스뜨라한, 보로네쉬, 이바노보, 리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스몰렌스크, 툴라, 울리야놉스크 시의 회 선거결과를 보면, 의석배분에서 보로네쉬와 리베츠크는 90%가 넘는 비율의 의석을 통합러시아가 얻었다. 통합러시아가 가장 의석을 적게 배분받은 툴라시 의회의 경우에도 45.72%의 의석을 배분받았다. 그 다음이 대체로 러시아공산당이 많은 의석을 배분받았는데, 노보시비르스크와 툴라, 이바노보가 각각 15.00%, 17.14%, 10.00%였다. 울리야놉스크에서는 러시아 자유민주당이 러시아 공산당보다 의석배분이 많았고, 정의로운 러시아는 이바노보와 툴라에서는 러시아공산당과 같은 수의 의석을, 보로네쉬에서는 2석을 배분받아 1석을 배분받은 러시아공산당을 앞섰다. 무소속 후보들이 의석배분율이 높은 것은 아스뜨라한, 스몰렌스크시 의회선거였다.

극동, 시베리아의 지역주의적 정서가 정치적으로 선명하게 부각되면서 외부로 표출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극동, 시베리아지역은 연방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민족적인 특성을 지니며 여기에 더하여 접경지역으로서 러시아의 동방기지로써의 위상을 갖고 있다. 정치사회변화의 와중에서 연방정부의 경계를 받는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내부적인 긴박성이나 긴장감에 비해 그것이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나 조직으로 표출되는 것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연방정부나 연방수준 정치활동가들에 의한 선제적 조직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역기반을 갖는 정치조직의 무력화 시도가 지금까지 보여져왔다. 자연,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그 지리적 위치에 기인하면서 러시아 정치발전과정에서의 위상을 보더라도 지역을 대외적으로 개방하는데 인색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서 지역의 정서는 저항, 분리, 독립의 개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역형성의 역사에서 보듯이 이 지역 역시 수 천년에 걸친 민족의 이동과 집산의 과정을 거쳤지만 본격적인 지역개발의 역사는 소비에트 시기였으며 그 이후에도 민족간 관계의 빈번함이라든가 지배적 비중을 갖는 러시아족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극동, 시베리아지역은 지난 시대 상당부분 유형지였고, 그 개발은 풍토의 척박함으로 인해 토착민족들에 의해서보다는 주로 러시아족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현대사의 정치적 굴곡에도 불구하고 극동, 시베리아지역은 경제, 천연자원의 측면은 물론, 혼란하지 않은 후방이면서 접경지역으로 위치지위지기를 많은 러시아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극동, 시베리아의 지역적 정서를 고유의 “북부의 형제애”로 표현하고 이것이 사회적 관계의 기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여러 물결의 이주자들과 부딪치지 않고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기도 한다. 지역주민들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대해 단절감을 누구보다 강하게 느끼

는데, 언어에서도 차이가 크다. 러시아의 유럽지역과 자신들의 지역은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 및 교통문제가 주요의제로 제기되며, 반면 테러, 인종주의 등에 대한 투쟁은 거의 중요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방정치가들의 활동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강한 지역주의 정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반대의 개념보다는 분리, 고립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민들의 독자성과 독립성은 ‘행정적 자원’의 활용가능성에 의해 제한되지만, 모스크바에서 멀수록 지역 자체의 고유한 사회적 구조가 강해지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보여진다((КЫНЕВ 2008).

## V. 여론조사 결과

### 1. 국가두마와 정부의 신뢰도

연방수준에서 국가권력기관과 주요인물들의 신뢰도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국가두마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극히 대비된다. 2008년 11월 초 11개의 연방주체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여론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두마의 활동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나라의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가 입법 및 생활환경 개선에서 국가두마의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국가두마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표5> 국가권력기구에 대한 평가 (연방, 2008.11.4.)

국 가 두 마	▽국가두마의 업무에 관해 당신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해주십시오: 아주 잘, 잘, 보통, 별로 혹은 아주 별로.	<table border="1"> <caption>국가두마 업무 평가 (평가 기준)</caption> <thead> <tr> <th>시기</th> <th>отлично и хорошо</th> <th>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th> <th>плохо и очень плохо</th> <th>затрудняюсь ответить</th> </tr> </thead> <tbody> <tr> <td>6-7 октября 2001</td> <td>5</td> <td>6</td> <td>9</td> <td>-</td> </tr> <tr> <td>29-30 июня 2002</td> <td>37</td> <td>39</td> <td>36</td> <td>36</td> </tr> <tr> <td>21-22 апреля 2007</td> <td>49</td> <td>41</td> <td>39</td> <td>26</td> </tr> <tr> <td>1-2 ноября 2008</td> <td>9</td> <td>15</td> <td>18</td> <td>29</td> </tr> </tbody> </table>	시기	отлично и хорошо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	плохо и очень плохо	затрудняюсь ответить	6-7 октября 2001	5	6	9	-	29-30 июня 2002	37	39	36	36	21-22 апреля 2007	49	41	39	26	1-2 ноября 2008	9	15	18	29
	시기	отлично и хорошо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	плохо и очень плохо	затрудняюсь ответить																						
6-7 октября 2001	5	6	9	-																							
29-30 июня 2002	37	39	36	36																							
21-22 апреля 2007	49	41	39	26																							
1-2 ноября 2008	9	15	18	29																							
▽국가두마의 업무가 오늘날 러시아경제의 상황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국가두마는 러시아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까?	<table border="1"> <caption>국가두마 업무의 경제 영향 (영향 기준)</caption> <thead> <tr> <th>시기</th> <th>положительно</th> <th>отрицательно</th> <th>никак не влияет</th> <th>затрудняюсь ответить</th> </tr> </thead> <tbody> <tr> <td>6-7 октября 2001</td> <td>17</td> <td>14</td> <td>28</td> <td>41</td> </tr> <tr> <td>29-30 июня 2002</td> <td>17</td> <td>14</td> <td>28</td> <td>41</td> </tr> <tr> <td>21-22 апреля 2007</td> <td>17</td> <td>14</td> <td>28</td> <td>41</td> </tr> <tr> <td>1-2 ноября 2008</td> <td>17</td> <td>14</td> <td>28</td> <td>41</td> </tr> </tbody> </table>	시기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рицательно	никак не влияет	затрудняюсь ответить	6-7 октября 2001	17	14	28	41	29-30 июня 2002	17	14	28	41	21-22 апреля 2007	17	14	28	41	1-2 ноября 2008	17	14	28	41	
시기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рицательно	никак не влияет	затрудняюсь ответить																							
6-7 октября 2001	17	14	28	41																							
29-30 июня 2002	17	14	28	41																							
21-22 апреля 2007	17	14	28	41																							
1-2 ноября 2008	17	14	28	41																							

연방정부	<p>▽당신이 블라지미르 푸친의 정부의 업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주시요: 아주 잘, 잘, 보통, 별로 혹은 아주 별로.</p>	<p>* 2004년에서 2007년에 걸친 여론조사들에서는 프라드코프(М. Фрадкова)의 정부에 관해, 2008년 5월 24-25일에는 주브코프(В. Зубков)의 정부에 관해 논의되었다.</p>
연방정부	<p>▽러시아경제의 상황에 정부의 업무가 오늘날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정부는 러시아경제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까?</p>	

출처 : Политические индикаторы 2008; Оценка работы органов власти... 2008.

국가두마의 업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보면, 2001년 10월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보통’이라는 대답이 36%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낮아졌고, 비교적 관망하는 의견이 상승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러시아경제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역시 40%를 웃돌았다. 2008년 당시 메드베제프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가 높아졌는데, 부총리,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따른 정치적 비중과 관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통령 푸친에 대한 신뢰도는 40-50%대였는데, 총리 푸친에 대한 신뢰는 70%를 약간 상회하는 것이 흥미롭다. 정당들 가운데서는 통합러시아가 자신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선거에서 보여준 지지율보다는 낮다. 러시아공산당, 자유민주당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2.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지역수준 정치적 제도와 현실에 대해 극동, 동시베리아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수준에서 가장 큰 권위를 누리는 것은 주지사이고,<sup>6)</sup> 그 선출제도의

6) 주지사가 지역수준에서 가장 큰 권위를 누린다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전러시아여론조사센터의 주도하에 2008년 6월 28-29일 그리고 7월 12-13일에 러시아의 42개 주, 크라이, 공화국에서 140 거주 지역에서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러시아인들은 지역수준에서는 주지사→의사→시장→교사 순으로 견해를 존중하고 의견을 결정하는 대상이라고 응답했다. Авторитетные лица... 2008.

변경을 둘러싼 논의가 적지않게 진행되었다. 주지사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극동, 동 시베리아지역이 푸친 집권하에서 새로 마련된 제도적 기반의 현실화에 비교적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극동과 시베리아지구에서 연방주체 수장의 직접선거 폐지가 가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견해가 우세하고 나머지 지구에서는 승인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남부, 볼가, 우랄지구에서는 주지사 직접선거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42%의 응답자가 대통령 추천에 따른 지역 입법기관에서 주지사 선출로의 제도변경이 가치를 입증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적은 것은 아닌데, 33%가 그러하고, 지난 2년간 6%가 늘어난 숫자이다.

<표6> 지역수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a. 3년전 블라지미르 푸친은 지역주민에 의한 주지사 직접선거 폐지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대통령의 추천에 따라 지역의 입법회의에서 선출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결정이 가치를 입증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

	모든 응답자	연방지구						
		중앙	북서	남부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
완전히 입증했다.	14	11	23	13	14	14	13	12
입증한 것에 가깝다	28	29	23	32	30	30	23	20
입증하지 못한 것에 가깝다	21	20	30	15	23	11	27	19
완전히 입증하지 못했다	11	10	8	7	7	9	15	29
대답하기 어렵다	26	30	16	33	26	36	22	20

\* 2008년 7월 5-6일 브찌움이 주도하여 실시. 러시아의 46개 주, 크라이, 공화국에서 153개 거주지역에서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통계오차는 3.4%를 넘지 않는다.

출처 : Полномочия губернаторов... 2008.

- b. 당신이 생각하기에 현직 지역수장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적절한 전범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수장으로 맞을 것 같은 주지사는 누구입니까?

	모든 응답자	연방지구							모든 응답자	연방지구							
		중앙	북서	남부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		중앙	북서	남부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	
루쉬코프 (Лужков Ю.М.)	10	21	9	10	4	8	4	3	세르듀코프 (Сердюков В.П.)	0	0	1	-	-	-	-	-
툴레예프 (Тулеев А.М.)	5	2	2	4	2	2	20	7	스트로예프 (Строев Е.С.)	0	1	-	-	-	-	-	-
마트비엔코 (Матвиенко В.И.)	3	2	16	2	2	3	1	-	톨로콘스키 (Толоконский В.А.)	0	-	-	-	-	-	1	-
아브라모비치 (Абрамович Р.А.)	2	2	2	3	1	1	2	1	필립첸코 (Филиппенко А.В.)	0	-	-	-	-	5	-	-
뜨까쵸프 (Ткачев А.Н.)	2	1	1	9	0	-	2	-	홀로뽀닌 (Хлопцонин А.Г.)	0	0	-	-	-	1	1	1

샤이미예프 (Шаймиев М.Ш.)	2	1	1	0	6	1	-	2	찌포프 (Титов)	0	-	-	-	1	-	-	-
그로모프 (Громов Б.В.)	1	4	-	-	1	-	-	-	폴레자예프 (Полежаев Л.К.)	0	-	-	-	-	-	1	-
사브첸코 (Савченко Е.С.)	1	4	-	-	-	-	-	-	표도로프 (Федоров Н.В.)	0	-	-	-	1	-	-	-
추브 (Чуб В.Ф.)	1	-	-	4	-	-	-	-	라히모프 (Рахимов М.Г.)	0	-	-	-	1	-	-	-
산체프 (Шанцев В.П.)	1	0	-	-	2	-	-	-	그런 인물이 없다	1	1	1	2	1	1	1	2
코롤료프 (Королев О.)	1	2	-	-	-	-	-	-	푸친 (Путин В.В.)	1	0	-	0	0	-	1	2
두드카 (Дудка В.Д.)	0	1	-	-	-	-	-	-	기타	3	3	1	4	3	4	4	6
로셀 (Россель Э.Э.)	0	-	-	-	-	1	-	-	대답하기 어렵다	66	53	69	66	74	72	64	77

\* 2008년 6월 28-29일 브찌움이 주도하여 실시. 러시아의 42개의 주, 크라이, 공화국에서 140개의 거주지에서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통계오차는 3.4%를 넘지 않는다.

출처 : Рей тинги российских губернаторов... 2008.

새로운 규칙에 따라 직위에 오른 지역 수장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극동, 시베리아지역 주민들이 갖는 부정적 견해가 보여진다. 2008년 8월 18-28일 전러시아여론조사센터가 13개 연방주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극동, 동시베리아지역의 3개주, 즉 캄차트카 크라이, 사할린주, 아무르주가 포함되었다. 13개 연방주체들 가운데서 지역수장의 활동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크라스노야르스크, 사마라, 니췌고로드, 이바노보, 코스트로마 주민들로서 70% 이상 그러한 평가를 했다. 노브고로드와 사할린주는 응답자의 3분의 2 정도가 주지사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반면, 아무르주는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유일한 지역이었다(Оценка работы новых губернаторов 2008).

여러 연방지구 주민들은 대체로 '자신의' 주지사를 선호한다. 다음의 표는 지역수장들 가운데서 적절한 전범, 자신의 지역에 가장 적당할 것 같은 주지사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각 지역의 반응을 보여준다.

중앙연방지구에서는 가장 적절한 주지사의 전범으로 누구보다 루쉬코프가 자주 거론되었고(21%), 시베리아연방지구에서는 톨레예프(20%), 북서연방지구에서는 마뜨비엔코가 생각되었다. 남부연방지구에서는 루쉬코프와 크라스노다르 크라이 지사인 트까췌프가 대략 동일한 지지(9-10% 정도씩)를 받았다. 극동지구에서 푸친이 비교적 선호를 받고 있고, 대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

생활수준 하락에 반대하는 대중적 항의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답변은 2008년 3월 21%에서 12월 30%로 증가했다. 이는 2006년 12월 여론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2008년 12월 20-21일 42개 연방주체에서 실시된 전러시아여론조사센터의 여론조사 결과이다. 대중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남부(66%), 우랄, 북서, 극동지구(63-64%)의 주민들이고 소도시와 촌락



의 주민들(각각 68%와 70%)이다. 5분의 1의 러시아인(21%)이 대중적 시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대답했다. 극동지역 주민들이 생활수준 하락에 대항하는 항의시위에 기꺼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29%), 남부가 그 뒤를 이었다(26%). 이들과 연대가 되는 것은 대도시, 소도시 그리고 촌락의 주민들(23-24%)이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당과 공산당 지지자들에게((각각 34%, 31%)) 특징적이었다(Каждый пятый россиянин готов... 2008).

지역정치와 관련, 두드러지는 것은 극동, 시베리아 주민들의 부정적 응답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수장 선출방식 변화의 수용, 새로이 선출된 현직 수장에 대한 인식에서 특히 분명하게 보여진다. 이를테면 아무르주 주지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개별사례에 대한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파악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정치적 분위기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역시 지배적일 수 있다.

연방수준 정치에 대한 의견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지역수준에서 현직 수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역시 중앙정치가보다는 자신의 지역의 수장들에 훨씬더 관심을 두고 있음이 선명히 보여진다. 비교적 변화의 가능성이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 VI. 맺음말

지금까지 주로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와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의 전형성 평가를 통해 극동, 시베리아지역의 정치의식, 정치성향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연방의 양대 선거에서 지역유권자들이 보여준 투표행태, 지방의회 선거결과 및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의 정치의식 변화를 고찰할 수 있었다.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의 전형성이 열린집권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대체로 푸친 집권을 전후하여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의 강도가 높아졌고 이는 메드베제프 집권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집권세력의 지속과 변화의 흐름과 관련해서 보면, 연방정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가 이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방수준 정치적 지형이 지역에 갖는 의미에 관련되면, 지역수장들의 정치적 비중을 통과하여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보수성과 개혁성 사이를 오가던 극동, 시베리아 지역주민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의 강화와 더불어 급격히 집권세력에 동조하는 성향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수준 집권세력에 대한 태도는 연방수준의 경우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연방수준 선거에서 보여준, 보수적인 좌파세력들에게 활동의 여지를 주었던 것에서 집권세력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돌아서는 흐름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지방수준 선거에서는 지역적 정서에 맞는 인물의 선출이 두드러지는데, 전국적 인물이나 정당일 경우 전국적 지명도 보다는 대체로 집권세력에 의한 낙점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선거에서 보여지는 행태는 연

방수준 선거에서보다는 좀더 실용적 측면이 부각되며, 이전시기의 지배씨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각보다는 크다. 대부분의 경우 극동, 시베리아지역 유권자들은 연방과 지방을 분리적으로 인식하여, 상반되는 투표결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많은데, 다만 최근에 들어서 집권정당의 압도적 우위가 지방에서도 관철되는 것이 새로운 현상으로 꼽힌다.

지방수준 선거에서 제도의 변화와 병행하여 정치세력 선택의 변화가 입혀질 수 있다. 연방주체 수장의 선출방식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지방의 권력구조가 변화되었고, 지방수준에서 유권자들은 약화된 입법기관의 지위가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기관 선거를 주요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했다. 지방수도의 시장선거도 아직 남아있으나, 결국 연방주체 단위의 권력기관이 갖는 의미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2005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각 연방주체의 기본법에 따라 의회 구성이 이루어졌다. 2009년과 2010년에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집권정당의 압도적 우위속에 반대정당의 약화와 온존이 드러나며 기본구도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보여지지 않았다. 집행권력이 집권세력으로 압도적으로 중심이 경사되는 가운데 입법권력마저도 집권세력으로 집중되는 경향성을 보여 주면서 반대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더 줄어드는 현상이 보여졌다.

이러한 것이 지역주의적 정서에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극동, 시베리아지역이 정치적으로 지역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수준에서 도시와 지방의 투표경향과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분절성, 고립성의 측면, 인종적, 민족적, 역사적 독자성에 기반하는 선거의 실시와 그것에서 드러나는 선택의 방향, 산업경제적 측면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연방에의 개입에 대한 연방과 지방수준의 상반된 지지경향 등은 지역정치 특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급박하다고 보기 힘든 대신 엘리트 교체는 연방권력의 압력과 지역의 당면한 상황, 외부적 긴박성 등에 기인하면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극동, 시베리아지역은 상대적으로 젊은 엘리트들을 배출하려는 중앙의 의도에 의해 지방수장들의 면모가 바뀌는 경험을 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중적으로 보여진다. 연방수준에서는 집권세력에 지지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지역수준에서는 비교적 온건한 개혁을 선호한 것으로 드러난다. 투표결과와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여지는 바는, 극동, 시베리아지역 주민들은 아직까지 급격한 혼란보다는 여전히 집권, 중심과 거리를 두는, 그러면서 두드러지지 않는 지역으로서의 색채를 간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극성보다는 주로 행정적, 관료적 통제와 관리와 익숙하고, 선거와 지방정치가 갖는 의미가 부각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 정치적 세가 갑자기 강화된다거나 국제적, 대내적 요인으로 인한 근본적 정치지형이 바뀌거나 하지 않는 한, 이 지역의 이러한 정서는 비교적 장기간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참 고 문 헌

- 강혜련(2005). 『러시아지방의 정치적 특성과 유형화』. 서울: 도서출판 오름.
- Jalali, Rita and Seymour Lipset(1992/1993). "Racial and Ethnic Conflicts: A Global Perspective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7, No. 4, pp. 585-606.
- Kaspin, Deborah(1995). "The Politics of Ethnicity in Malawi's Democratic Transition."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33, No. 4, pp. 559-620.
- Lijphart, Arendt(1981). *Political Parties: Ideologies and Programs*. Washington: Butler, Penniman, Ranney. eds. Democracy at Polls.
- Newman, Saul(1991). "Does Modernization Breed Ethnic Political Conflict?" *World Politics*. Vol. 43, pp. 451-478.
- Newman, Saul(1994). "Ethnoregional Parties: A Comparative Perspective." *Regional Politics and Policy*. Vol. 4, No. 2, pp. 28-66.
- Ragin, Charles(1977). "Class, Status, and Reactive Ethnic Cleavages: The Social Bases of Political Regionalis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2, pp. 438-450.
- Rudolph, Joseph R. and Robert J. Thompson(1985). "Ethnoterritorial Movements and the Policy Process." *Comparative Politics*. April 1985, pp. 291-311.
- Авторитетные лица: кого уважают в российской глубинке? / ВЦИОМ: Пресс-выпуск No. 1074. 21.10.2008. [http://wciom.ru/arkhiv/tematicheskii-arkhiv/item/single/10857.html?no\\_cache=1&cHash=5de592b60e](http://wciom.ru/arkhiv/tematicheskii-arkhiv/item/single/10857.html?no_cache=1&cHash=5de592b60e). (2008년 12월 29일 검색).
- ВЦИОМ: Каждый пятый россиянин готов лично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акциях протеста / REGNUM. <http://www.regnum.ru/news/1104765.html?forprint>. (2008년 12월 28일 검색).
- Законодательная Дума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Центральная избирательная комисс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cikrf.ru/newsite/vib\\_140310/dep/res/res.jsp](http://www.cikrf.ru/newsite/vib_140310/dep/res/res.jsp). (2010년 5월18일 검색).
- Къшев А(2008). Региональные избирательные кампании как индикатор развития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 Отечественные записки. Журнал для медленного чтения. No. 5 (44). <http://www.strana-oz.ru/?numid=29&article=1251> (2008년 12월 21일 검색).
- Ментальность Россиян(1997). *Специфика сознания больши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 Под общред. Дубова И.Г.* М.: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образования,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 Оценка работы новых губернаторов / ВЦИОМ: Пресс-Выпуск No. 1037 (03.09.2008). <http://wciom.ru/arkhiv/tematicheskii-arkhiv/item/single/10623.html>?

- no\_cache= 1&cHash= 3749bf9ef9 (2008년 12월 29일 검색).
- Оценка работы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их влияния на экономику. (06.11.2008.)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http://bd.fom.ru/report/map/projects/dominant/dom0844/d084422> (2008년 11월 15일 검색).
- Политические индикаторы. (30.10.2008.)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http://bd.fom.ru/report/map/projects/dominant/dom0842/d084301> (2008년 11월 15일 검색).
- Полномочия губернаторов: расширять, сокращать или оставить как есть? / ВЦИОМ: Пресс-выпуск №. 1002. 11.07.2008. [http://wciom.ru/arkhiv/tematicheskii-arkhiv/item/single/10374.html?no\\_cache=1&cHash=8c95e4a1e1](http://wciom.ru/arkhiv/tematicheskii-arkhiv/item/single/10374.html?no_cache=1&cHash=8c95e4a1e1) (2008년 12월 28일 검색).
- Рей тинги российских губернаторов: лужков пагает впереди! / ВЦИОМ: Пресс-выпуск №. 1012. 24.07.2008. [http://wciom.ru/arkhiv/tematicheskii-arkhiv/item/single/10440.html?no\\_cache=1&cHash=53998c2252](http://wciom.ru/arkhiv/tematicheskii-arkhiv/item/single/10440.html?no_cache=1&cHash=53998c2252) (2008.12.29. 검색).
-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становление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ценностей? / Под ред. М. Макклола и А. Рябова. М.: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Гендальф, 1999.
- Россия: душой - в европе, телом - в азии / ВЦИОМ: Пресс-выпуск №. 652. 16.03.2007. [http://wciom.ru/arkhiv/tematicheskii-arkhiv/item/single/4208.html?no\\_cache=1&cHash=7437576bd7](http://wciom.ru/arkhiv/tematicheskii-arkhiv/item/single/4208.html?no_cache=1&cHash=7437576bd7) (2008년 12월 29일 검색).
- Рукавишников В.О., Халман Л., Эстер П. Политические культуры и соци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равнения. М.: СОВПАДЕНИЕ, 1998. С. 282-286.
- Сводная таблица о результатах выборов по федеральному избирательному округу (19 декабря 1999 года). [http://www.cikrf.ru/vib\\_arhiv/gosduma/1999/files/1999-Svodnaya\\_CIK.xls](http://www.cikrf.ru/vib_arhiv/gosduma/1999/files/1999-Svodnaya_CIK.xls) (2009년 1월 4일 검색).
- Сводная таблица об итогах голосования по выбора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6 МАРТА 2000 ГОДА). [http://www.cikrf.ru/vib\\_arhiv/president/2000/files/2000-Svodnaya\\_CIK.xls](http://www.cikrf.ru/vib_arhiv/president/2000/files/2000-Svodnaya_CIK.xls) (2009년 1월 4일 검색).
- Сводная таблица результатов выборов. Выборы депута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ятого созыва. Дата голосования: 02.12.2007. [http://www.vybory.izbirkom.ru/region/region/izbirkom?action=show&root=1&tvd=100100021960186&vrm=100100021960181&region=0&global=1&sub\\_region=0&prver=0&pronetvd=null&vibid=100100021960186&type=233](http://www.vybory.izbirkom.ru/region/region/izbirkom?action=show&root=1&tvd=100100021960186&vrm=100100021960181&region=0&global=1&sub_region=0&prver=0&pronetvd=null&vibid=100100021960186&type=233) (2009년 1월 4일 검색).
- Сводная таблица результатов выборов. Выборы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ции. Дата голосования: 02.03.2008. [http://www.vybory.izbirkom.ru/region/region/izbirkom?action=show&root=1&tvd=100100022249920&vrn=100100022176412&region=0&global=1&sub\\_region=0&prver=0&pronetvd=null&vibid=100100022249920&type=227](http://www.vybory.izbirkom.ru/region/region/izbirkom?action=show&root=1&tvd=100100022249920&vrn=100100022176412&region=0&global=1&sub_region=0&prver=0&pronetvd=null&vibid=100100022249920&type=227) (2009년 1월 4일 검색).

Сибирь 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яне готовы к новому баму? / ВЦИОМ: Пресс-выпуск №. 596. 12.12.2006. <http://wciom.com/novosti/press-vypuski/press-vypusk/single/3717.html?L%5B0%5D=0&L%5B1%5D=1&cHash=97da3dfd19> (2008년 12월 10일 검색).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1998). На русском, английском, немецком, французском и чешском языках. М.: Институт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РАН, Институт социологии РАН.

Abstract

## Political propensities in the Russian Far East and Siberia

Hea-Ryon Kang and Jae-Wook Park\*

This study focuses on political atmosphere in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on the basis of votings and surveys. First, this study shows that voting patterns in the regions are similar to those found in the Russian Federation as a whole: the grassroots of the regions appeared to accept policies of the center. Second, increasing support for the 'ruling party' has recorded in elections, particularly in large cities. Third, as a result of increasing role of the ruling party, conservative left wing seems to be marginalized. Political factions are merged with dominating ruling party in the regions, as well as at the center. Fourth, a high level of support for the ruling party are also apparent in the national administrative units, particularly under Putin. Such tendencies shows growing authoritarianism in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Fifth, survey results, however, are in contradiction to the voting patterns: the grassroots in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often withdraw their supports for the center.

These findings lead us to a conclusion that the political tendencies in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has formed a rather complicated feature: support authoritarian center with their emphasis of reform policies. Such feature seems to be unchanged at least in the near future.

■ 논문접수일 : 2010년 5월 31일, 논문심사일 : 2010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0년 8월 15일

---

\* Research Professor, Yonsei Univ./ Professor, Silla Univ.